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남원시,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 7개 가야고분군 등재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30일,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7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30일,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7개 가야고분군 등재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날 행사는 남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지역민에게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남원 가야고분군의 비전인 '남원 세계를 품다'라는 표어를 캘리그래피 연출로 화려하게 수 놓으며 시작해 등재 경과보고, 축하영상, 유공자 표창, 등재선포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가치를 직접 지역민에게 설명하고,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정민 전북특별자치도 회 부의장 등이 참여해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축하를 나눴으며, 다양한 축하공연과 지역민들의 참여로 기념식이 성황리를 이루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로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전승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조직위 발대식 개최

도민체전 성공개최 선도적 역할 수행

순창군이 지난 29일 '행복담은 순창에서 함께여는 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군 청사 2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조직위원회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문화·예술 관계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준비상황 보고, 결의문 낭독, 성공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군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 안전, 홍보, 자원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도민체전 성공개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순창군은 지난 29일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순창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인 만큼 180만 도민

모두 행복이 가득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

남원시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은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며, 월세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을 통한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19~45세 청년으로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이다.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고 거주지 읍면동과 시에서 자격을 확인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노인 일자리 사업 2833개 확보

최영일 순창군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

2월부터 노인일자리 1인당 활동비 월 30만원씩 본격 지원-

최영일 순창군수가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며 오는 2월 1일 본격 시행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도 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최소한의 용돈벌이도 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취임 초기, 임기 내에 노인일자리 3천개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1년 반이 지난 2024년 1월 현재 순창군의 노인일자리 수는 취임 초기 1,281개보다 무려 1,552개 늘어난 2,833개로 임기 내 공약으로 내 걸었던 목표치인 3천개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공약형 2,085개, 사회서비스형 618개, 시장형 100개, 취업알선형 30개 등 총 2,833개로, 최근 참여자 신청·접수를 마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군은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본예산 53억원 대비 82억원이 늘어난 135억원을 확보했으며, 예산 확보과정에서 전체 예산 대비 70%를 국·도비로 확보해 예산 절감 효과도 보였다. 또한 최 군수가 지난해까지 1인당 월 27만원씩 지원되던 공약형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임기 내에 30

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 공약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 2024년도 공약형 노인일자리 1인당 활동비를 27만원에서 27원 증액해 29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군은 군비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2월부터 월 30만원씩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창군은 지난해 공약형 노인일자리 활동비 30만원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본예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군비 2억 2,900만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순창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문화체험활동비로 군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해 문화활동 장려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체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순창군의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필두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창 전체 36.5%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365일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봄철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임실군이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본격적인 산불 방지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113명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분산 배치하여 산림 입접지 소각 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 금지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가 산불 상황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은 백련산 등 관내 주요 지점 4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감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불

조심 깃발·현수막과 마을회관에 산불 예방 홍보관을 설치한다.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물론, 소각 행위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소각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읍·면 산불감시원에게 배부된 산불 신고 단말기를 통해 산림청 산불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불감식반을 동원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군민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치매 환자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신청자를 연중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이다. 지원 내용은 치매치료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치매치료약의 본인부담금으로, 매월 3만 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소득 수준 120%이하 지는 국비지원, 소득 수준 120%초과 지는 자체 시비지원으로, 시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약 제비 영수증을 치매안심센터로 문자 또는 팩스 접수하면 된다.

치매 치료비 신청의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620-7725)나 가까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 최민자 치매안심과장은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치료는 가능한 조기에 시작해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기 검진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박현)는 설명절에 고향 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재 없는 안전한 연휴를 만들자는 취지로 고향 집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며, 설치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에 나사로 고정하는 형태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남원소방서는 관내 전광판 및 SNS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